

반 고흐의 예술과 소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rt of Vincent van Gogh and His Calling

라영환 (Young Hwan Ra)*

Abstract

The paper puts forward a new perspective on the works of Vincent van Gogh. Although many studies on the works of van Gogh exist,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s of van Gogh and his life story. Many people think of van Gogh as an artist who tragically succumbed to madness, poverty and depression, and eventually ended up killing himself, without the recognition of his contemporaries. This often told story about van Gogh hinders us from seeing him as a Christian painter that pursued God's calling. The fact that van Gogh had once desperately wanted to be a pastor, and that painting was actually his second calling that he found following his failure to become a pastor, is much lesser known to the public. In the many studies on van Gogh,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van Gogh's early life. They tend to focus on the period that he spent an active painter, from the age of 27 until his death. However, to fully understand and appreciate his artwork we must first examine the years before he became a painter.

Vincent van Gogh's journey to be a painter provides a crucial hermeneutical key to understand his work. In his early twenties, he gave up his comfortable job to find a meaningful life and found his calling as pastor. In England and Belgium, he saw the misery of human beings and had great compassion for them. This is evident from the drawings and paintings that he created and the letters in which he wrote about them. He sympathetically depicted miners, workers and peasants, on whom he looked with compassion in the same way that Jesus did. Just as Jesus devoted himself to the poor, van Gogh wanted to serve the poor through his art. Just as Jesus was with those that had been isolated from the society, He wanted to heal the people who were suffering and alienated. He looked at the poor through God's eyes and wanted to reveal the beauty in them. In his first sermon, on quoting the text from Psalms 119:19, van Gogh said "we are pilgrims, our life is a long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신학과 교수,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43, yhr1988@hanmail.net
2019년 09월 26일 접수, 11월 13일 최종수정, 11월 21일 게재확정

walk or journey from earth to heaven". The motif of pilgrimage appeared frequently in van Gogh's works. Van Gogh himself always felt like a pilgrim that was living for another destination.

Key Words : van Gogh, calling, the pilgrimage, the eternity, the peasant paintings

I. 서론

서양 미술사에서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처럼 작품보다 개인의 삶이 주목을 받은 화가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술가들, 예를 들어 마네(Édouard Manet, 1832-1883), 모네(Oscar-Claude Monet, 1840-1926), 들라크루아(Eugène Delacroix, 1798-1863),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 베르나르(Émile Henri Bernard, 1868-1941) 등의 경우 개인의 삶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반 고흐의 삶이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은 광기와 비극적인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 때문이었다. 노무라 야스씨, 나탈리 에니히(Nathalie Heinich), 주디 선드(Judy Sund), 데이빗 스위트만(David Sweetman) 앙드레 크라우스(André Krauss), 스티븐 나이페(Steven Neife), 마이어 사피어(Meyer Sapir), 잉고 발터(Ingo Walter), 안톤 베셀스(Anton Wessels)와 같은 학자들은 반 고흐의 광기에 초점을 맞추어 반 고흐의 삶과 작품을 조명하였다.¹⁾ 에니히가 지적한 바와 같이 반 고흐 불행과 광기에 관한 신화들은 점차로 성인전(聖人傳) 형식으로 발전되었다(Heinich, 1998: 76-91).

반 고흐가 한때 목회자가 되기를 갈망했으며, 화가는 그가 목회자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된 후에 찾게 된 소명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비극적인 신화에 비해 덜 알려져 있다. 최근에 기독교적 관점에서 반 고흐의 작품세계를 바라보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라영환, 서성록, 심양섭, 안재경, 클리프 에드워즈(Cliff Edwards), 캐서린 에릭슨(Kathleen Erickson)과 같은 이들은 반 고흐의 작품 속에 깔린 기독교 세계관에 주목하였다.²⁾ 이러한 시도들은 광기 어린 천재 혹은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한

1) 노무라 야스씨(2004); Heinich (2006); Sund(2002); Sweetman (2003); Krauss (1983); Neifeh (2011); Sapir (1980); Walter (2013); Wessels (2013).

2) 라영환 (2015b:69-90); 라영환 (2015c:69-85); 라영환 (2015a); 라영환 (2017:89-131); 서성록 (2013:7-13); 심양섭 (2011:147-172); 안재경 (2014); Edwards (2007); Erickson (1998).

비운의 예술가라는 신화로 인해 가려진 반 고희와 기독교 세계관 사이의 연관성을 재조명하게 하였다.³⁾

반 고희에 관한 글들을 보면 주로 그가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27세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10년의 세월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반 고희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화가가 되기 이전의 27년간의 삶을 살펴보아야 한다. 반 고희가 삼 대째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그가 구필 화랑 런던지점에서 보내면서 당시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 운동에 영향을 받아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목회자가 되기로 한 것 그리고 벨기에 남부 보리나주(Borinage) 탄광에서 수습 설교자로 지내면서 목회자로서의 꿈을 키웠다는 사실은 반 고희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해석학적인 열쇠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반 고희의 소명과 그의 작품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일차적인 자료로 반 고희의 서신들을 검토할 것이다. 반 고희는 살아 있는 동안 동생 테오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과 서신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나누었다. 반 고희의 편지에는 그가 어떤 책을 읽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의 편지들을 읽다 보면 세간에 알려진 반 고희와 편지 속에 나타난 반 고희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그의 작품들이다. 반 고희의 예술세계에 관한 글들은 대부분 반 고희가 자신의 화풍을 완성했던 1888년 이후의 작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파리를 떠나 이틀에 정착한 이후로 반 고희는 자신만의 화풍을 형성하였다. <해바라기>, <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 <아이리스>, <사이프러스 나무>, <아몬드 나무>, <까마귀 나는 밀밭>, <선한 사마리아인>, <낮잠(밀레 작품 모사)>, <오베르의 거리>, <오베르 교회> 등과 같은 주옥같은 작품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작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 고희의 초기 작품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크롤러 필러 미술관에는 179개의 반 고희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1880년부터 1883년 사이에 제작된 것이다. 이 시기에 그려진 작품들을 보면 초기 반 고희를 사로잡은 주제들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그것은 노동하는 사람들이었다. 반 고희가 노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화폭에 담은 이유는 무엇일

3) 반 고희의 광기와 죽음에 대해서는 라영환, 『반 고희, 삶을 그리다』(서울: 가이드포스트, 2016), 107-125를 보라. 라영환은 반 고희의 죽음을 자살이 아닌 사고사로 본다. 스티븐 나이페(Steven Naifeh)와 그레고리 화이트 스미스(Gregory White Smith) 역시 반 고희가 총기 사용을 배운 적이 없었다는 점과 권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총알이 직선이 아니라 사선으로 통과한 사실을 들어 그의 죽음을 자살이 아닌 사고사로 본다. (Naifeh, Steven: 2011, 869-879)

까? 그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의 모습을 화폭에 담은 것은 그의 소명 때문이었다. 반 고흐의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소명이 인생 전반부에는 목회자로서 후반부에는 화가로서 표현된 것뿐이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진 화가가 되기 이전의 반 고흐의 삶의 여정과 그의 작품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룸으로써 반 고흐의 예술은 그의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II. 화가가 되기까지의 여정

반 고흐는 1853년 3월 네덜란드의 준데르트(Zundert)에서 삼대째 개혁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Neifeh, 2011: 23). 준데르트는 네덜란드의 남부에 있는 ‘북부 브라반트(North Brabant)’주(州)에 위치한 작은 농촌 마을이다.⁴⁾ 1849년 당시 준데르트는 주민이 6,000명 정도였는데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은 114명이었다.⁵⁾ 반 고흐의 아버지 도루스 목사는 이곳에서 1849년부터 1871년 1월까지 사역을 했다.⁶⁾ 당시 이곳에 거주하던 프로테스탄트 주민 가운데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은 대략 50여 명 정도였다(Sund, 2002: 13). 비록 가톨릭 주민이 대다수였지만 도루스는 주민 대부분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는 가톨릭 신자와 개신교 신자를 가리지 않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으며, 동네 구멍가게에 돈을 놓아 가난한 사람이 간단한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하였다(Meedendorp, 2016: 13). 반 고흐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호의와 종교적인 헌신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었다.

당시 네덜란드의 개신교 목사들은 중산층이었는데, 덕분에 반 고흐와 그의 형제들은 준데르트의 아이들과 달리 비교적 여유롭게 살았다. 서재에는 책이 많이 있었고, 저녁에

4) 준데르트가 네덜란드 남부에 있음에도 북부 브라반트라 불리는 이유는 이 지역이 브라반트의 북쪽 지방에 있기 때문이다. 1183년 건국된 브라반트 공국(Hertogdom Brabant은 벨기에 남부로부터 지금의 네덜란드 남부에 이르는 땅을 영토로 가지고 있었는데, 30년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베스트팔리아 조약(The Peace of Westphalia, 1648)에 의해 지금의 네덜란드에 속하게 된다.

5) https://en.wikipedia.org/wiki/Historical_urban_community_sizes (검색일 2019.7.22.)

6) 반 고흐의 아버지 테오도르 - 가족들은 그를 도루스라 불렀다 -는 위트레흐트 대학(Utrecht University)에서 신학을 공부한 뒤 네덜란드 개혁파(칼빈주의) 목사로 준데르트(Zundert)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였다. 참고. Van Gogh, Vincent. *The Complete Letters of Vincent Van Gogh*. Vol.1, XVIII.

는 부모님과 함께 책을 읽었다. 가족의 일과는 책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반 고흐는 평생 책을 가까이하고 살았는데 그의 독서에 대한 열정은 어린 시절 가정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듯하다. 특별히 성경은 그가 평생을 가까이했던 책이었다. 그는 성경을 최고의 책으로 생각했다. 성경은 반 고흐에게 영감의 원천이었다. 반 고흐는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 20대 초반 런던과 파리에서 소명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리고 화가로서 길을 걸어갈 때도 성경은 언제나 그의 곁에 있었다. 그는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 1877년 3월 16일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편119: 105 말씀을 인용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발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썼다. 성경은 언제나 그의 삶의 안내자였다.

내가 얼마나 성경에 이끌리고 있는지 너는 잘 알지 못할 거야.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있다.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이해하고자 한다. (1887.3.16.)⁷⁾

무엇보다도 성경과 복음서를 읽어야 해. 성경은 너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게 할 거야.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너의 사고를 보통 수준 이상으로 올릴 수 있어. (1880년 7월)⁸⁾

반 고흐는 성경에서 그 시대가 겪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했다. 그리고 화가로서 자신의 사명은 성경에서 삶을 변화시킬 힘을 찾아,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성경은 반 고흐가 평생토록 영감을 받은 책이다. 1890년 베르나르(Bernard)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경은 순수한 창조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하였다. 성경은 반 고흐가 평생 가까이하고자 한 책이었다.⁹⁾

7) Van Gogh, 2000a: 98.

8) Van Gogh, 2000a: 198.

9) 훗날 베르나르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반 고흐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했는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작품의 영감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한다. “당신이 성경을 읽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었지만 억제해 왔습니다. 당신이 모세나 바울의 글을 인용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정점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이나 바울 역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 내가 느끼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린 것은 들라크루아(Delacroix)와 렘브란트(Rembrandt)뿐입니다. 그리고 밀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렸습니다. 그림이 아닌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 외의 종교적인 그림들은 약간

1869년 여름 반 고흐는 16세의 나이로 헤이그(Den Haag)에 있는 구필 화랑(Goupil & Cie)에 수습사원으로 취직했다. 반 고흐와 같은 이름을 가진 숙부 빈센트가 화랑의 공동소유자였다(Naifh, 2011: 67). 1829년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된 구필 화랑은 판화와 복제 미술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던 곳으로 날로 번창해서 런던, 브뤼셀, 베를린, 헤이그, 뉴욕 그리고 파리에 지점을 세 곳이나 가지고 있었다. 구필 화랑은 초기 판화와 복제 그림을 취급하였지만, 사세가 확장됨에 따라 복제품이 아닌 그림을 사고파는 화랑으로 발전했다. 지분은 구필이 40%, 숙부 센트가 30% 그리고 또 다른 파트너인 레옹 부소가 30%를 소유했다(Meedendorp, 2016:27). 비록 수습사원이었지만 반 고흐는 구필 화랑에서 일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어릴 적부터 책을 가까이했던 그는 미술에 관련된 책을 집중적으로 읽으며 미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해 나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에 대한 반 고흐는 안목은 점점 더 깊어졌다. 르네상스 시대의 대가들과 스페인의 궁정 화가들, 고전주의와 신고전주의, 17세기 네덜란드 미술, 라파엘전파(Pre-Raphaelite Brotherhood), 마르비종파(Barbizon School), 헤이그 파(Hague School)¹⁰⁾에 이르기까지 미술사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 각 작품의 주제와 양식, 색채와 뉘앙스와 같은 세세한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신진 화가들의 작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van Gogh, 2000a: 18; Sund, 2002: 22).¹¹⁾

은 냉소적으로 보게 됩니다. 보티첼리(Botticelli)와 같은 르네상스 초기 화가들이나 플랑드르 화가(the Flemish), 반 아이크(van Eyck) 와 크라나흐(Cranach) 등도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삶이 근본적인 원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삶이 마음의 평안과 현신의 필요성과 존재 이유입니다. 그분은 모든 예술가보다 더 위대한 예술가로서 살아 있는 육체로 일하셨습니다. 이 위대하신 예술가는 인간의 아둔한 현대인의 머리로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늘과 땅은 사라지더라도 나의 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분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은 너무 풍부해서 창조하는 힘, 순수한 창조의 원동력이 됩니다(1888.6.28.)” 참고. Van Gogh, 2000c: 495-496.

- 10) 당시 헤이그는 프랑스 마르비종파의 영향을 받은 화가들이 모여 헤이그파라는 새로운 화풍을 수립하고 있었다. 안톤 모베(Anton Mauve), 요제프 이스라엘스(Joseph Israels)와 같은 화가들은 야외에서 자연을 직접 관찰하며 그리고자 했다. 야외에서 자연을 직접보고 그리려는 시도는 마르비종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그 위에 17세기 네덜란드 풍속화의 특징이었던 일상성을 추가하였다. 일상성과 대상을 직접보고 그리는 사실주의의 결합은 17세기 황금시대의 네덜란드 미술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되살려 놓았다. 이러한 시도는 성공적이었다.
- 11) 반 고흐는 테오필 토포-뷔르제르(Théophile Thoré-Bürger: 1807-1869)의 『네덜란드의 미술관들(Les Musées de la Hollande)』을 즐겨 읽었다. 뷔르제르는 프랑스 예술 비평가이며 저널리스트로 1848년 혁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그는 혁명을 지지하는 『진정한 공화국(La Verie République)』

반 고흐는 매우 열심히 일했고 1년 후에는 월급도 올랐고 특별 수당도 받았다. 그리고 스무 살 되던 해에는 정식 화상으로 승진하여 구필 화랑의 런던지점으로 발령받았다. 당시 그가 받는 월급은 당시 일반 노동자의 3배인 90파운드였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반 고흐가 런던에 머물 당시 런던은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1873년 런던의 인구는 330만 명이었고 면적은 파리의 두 배였으며 암스테르담의 15배였다.¹²⁾ 거리마다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었으며, 도로들이 확장되고 지하철이 운행되기 시작했다. 거리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며 활기가 차 있었다. 런던에 있는 중요한 미술관들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¹³⁾ 19세기는 중산모(Top Hat)의 세기라고 할 정도로 남자들은 높고 챙이 작은 검정 견섬유(絹纖維, silk)로 된 중산모를 쓰고 다녔다. 반 고흐 역시 런던의 신사들과 마찬가지로 중산모를 쓰고 런던에서의 삶을 즐겼다.

그러던 반 고흐의 눈에 산업화의 그늘진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반 고흐는 출근 길에 스트랜드(Strand) 거리 가판대에 놓인 『그래픽(The Graphic)』과 『런던 뉴스(The Illustrated London News)』에 실린 목판화들을 구경하곤 했다. 『그래픽』과 『런던 뉴스』는 화려한 런던 이면에 감추어진 사회적 불평등과 문제들을 삽화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었다(Pickvance, 1974: 28). 반 고흐는 잡지에 실린 삽화들을 통해서 성장 이전의 어두운 면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다(van Gogh, 2000a:56). 런던에서 반 고흐는 영미문학작품들을 읽기 시작했다(Pickvance, 1974: 20). 이 시기 반 고흐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영미문학작품들로는 존 번연(John Bunyan, 1628-1688)의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 조지 엘리엇(George Eliot, 1819-1880)의 『목사 생활 풍경(Scenes of Clerical Life)』, 헤리엇 비처 스토틀(Harriet Elizabeth Beecher Stow, 1811-1896)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Uncle Tom's Cabin)』,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 1812-1870)의 『크리스마스 캐롤(A Christmas Carol)』이 있다(van Gogh, 2000a: 48, 87-91,196). 『천로역정』을 통해서 반 고흐는 순례자의 영성을 배웠다(van Gogh, 2000a: 87-91). 존 번연에게서

이라는 신문을 발간하였지만 폐간당하고, 망명길에 오른다. 네덜란드에서 지내는 동안 17세기 네덜란드 황금기의 미술 작품이 가진 일상성에 대한 강조에 매료된다. 그는 17세기 네덜란드 예술 작품들에 반영된 민주적인 특징들이 가톨릭과 군주제를 무너트릴 수 있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힘을 반영한다고 믿었다.

12) https://en.wikipedia.org/wiki/Historical_urban_community_sizes(검색. 2019.7.2.)

13) 1824년에 내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가 설립되었고, 1851년에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뮤지엄(Victoria & Albert Museum) 그리고 1856년에 국립초상화미술관(National Portrait Gallery)이 개관했다.

받은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순례자의 영성은 훗날 반 고흐가 턴햄 그린 교회(Turnham Green Church)에서 한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특별히 디킨스의 책을 좋아했는데 19세기 영국의 모습을 충실히 그려내면서 당시 영국 사회가 직면한 빈곤, 아동학대, 노동 및 교육의 현실과 같은 문제들을 예리한 필치로 써 내려갔다. 조지 엘리엇과 헤리엇 비처 스톤의 작품도 디킨스와 마찬가지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당시 반 고흐는 스펀전(Charles Spurgeon, 1834-1892) 목사가 사역하는 런던 남부의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Metropolitan Tabernacle) 교회에 출석하였다. 스펀전은 당대 최고의 설교가였다. 수천 명의 사람이 매 주일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리고 수많은 공장 노동자들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을 보았다(van Gogh, 2000a: 56). 런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 운동은 반 고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 그가 테오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설교와 성경이 자주 인용이 된 것으로 보아 영국에서 강하게 일어났던 복음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Sund, 2002: 79-80). 복음을 통해 위로를 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청년 반 고흐는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다. 당시 그는 남들과 비교해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숙부가 구필 화랑의 공동 창업자였기에 화상으로서의 장래도 밝았다. 하지만 그것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다. 반 고흐는 물질이 주는 풍요로움보다 그가 타버나클 교회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 더 좋았다.¹⁴⁾ 일에 대한 열정은

14) 반 고흐의 전기 작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반 고흐가 갑자기 일에 대한 열정을 상실하고 무기력에 빠진 이유를 유지니 어설라(Eugenie Ursula)에게 찾는다. 유지니는 반 고흐가 런던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하숙을 했던 집의 딸이다. 반 고흐는 그녀에게 한눈에 반했고, 용기를 내 청혼을 했지만, 바로 거절당했다. 이 첫사랑의 거절이 그를 절망의 나락에 빠지게 하였다는 것이다. (참고, Naifh, 2011: 95-96)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 반 고흐가 테오와 주고받은 편지에 유지니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평소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상세히 서술하는 반 고흐의 스타일로 볼 때 만약 그가 유지니와 사랑에 빠졌거나 혹은 청혼한 것이 거절되었다면 언급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보낸 편지에는 그러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유지니의 거절로 인해 상실감에 빠져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견해는 지지받기가 어렵다. 반 고흐는 런던을 좋아했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보았던 안개가 자욱이 낀 웨스트민스터 다리(Westminster Bridge), 웨스트민스터 사원(Westminster Abbey), 국회 의사당(House of Parliament)이 그림다고 1875년 7월 24일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할 정도였다. (참고, Van Gogh, 2000a: 30) 파리에서 일 년을 지낸 후에 다시 돌아간 곳도 영국이었다. 만약 실연의 상처가 그를 힘들게 하였다면 런던에 대한 추억이 그가 말하는 것처럼 좋지는 않았을

식어갔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구필 화랑 런던 지점장은 반 고흐가 자신이 하는 일에 흥미를 잃은 것을 알고는 그를 파리로 전출시킨다.

하지만 파리에서도 일에 대한 반 고흐의 열정은 회복되지 않았다.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파리 지점에 와서도 계속되었다. 그림을 파는 일은 그에게 더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삶은 운택해졌지만, 영혼은 메말라가는 것 같았다. 반 고흐는 성경에서 그 대답을 찾곤 했다. 당시 그는 몽마르트르(Montmartre) 근교에서 직장동료였던 헤리 글레드웰(Harry Gladwell) 과 함께 지냈다(van Gogh, 2000a: 40).¹⁵⁾ 둘은 매일 저녁 거실에 앉아 성경을 함께 읽었다(van Gogh, 2000a: 40). 얼마나 성경을 탐독했는지 이 시기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는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간혹 미술작품들을 관람하기 위해 미술관에 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테오에게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거듭났음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강조한다((van Gogh, 2000a: 32,33,36). 반 고흐가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도 이때 즈음이었다.

우리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목회자가 나왔어. 그리고 지금도 목회자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이 내 위에 머물러 나로 하여금 목회자가 되게 하는 것이야. (1877.3.23)¹⁶⁾

반 고흐는 뿔어오르는 종교적인 열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은 일시적인 것이고 언젠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이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van Gogh, 2000a: 102). 반 고흐는 세상이 주는 안락함보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겼다. 그는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로 가야 하며, 섬김을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신자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굳게 믿었다(van Gogh, 2000a: 32). 토마스 아 캠프스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도 상당했고 열정적이었던 반 고흐가 갑자기 무기력해진 이유를 우리는 알 방법이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런던에서 근무하던 어느 시점에 자신이 하던 일에 회의감을 느꼈고, 그 이후 성경을 탐독하면서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다.

15) 당시 열여덟 살이던 글레드웰은 파리 구필에서 수습사원으로 지내고 있었다. 글레드웰의 아버지는 런던 구필 화랑에서 화상으로 일했고 자신의 아들을 화상으로 키우기 위해 파리로 보냈다.

16) Van Gogh, Vincent. *The Complete Letters of Vincent Van Gogh*. Vol.1, 99.

(Thomas á Kempis, 1380-1471)의 『그리스도를 본받아(Imitation of Christ)』는 당시 반 고흐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책이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하며, 이를 위해 영적인 삶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에 큰 감명을 받았다. 1875년 9월 27일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신자들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van Gogh, 2000a: 38).

헤이그에서 화상으로 첫발을 내디뎠을 때, 반 고흐는 숙부와 같이 성공한 화상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리고 스물한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능력도 인정받았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졌다. 일이 이렇게만 되어 간다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추구하던 일들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 반 고흐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더 화랑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1876년 1월 자의 반 타의 반 해고를 당한다.

1876년 4월 반 고흐는 열정을 불사를 일을 찾아 영국 남동부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 램스게이트(Ramsgate)에 있는 기숙학교 보조교사로 간다. 학생들의 부모는 가난한 노동자들로 대부분 생계를 위해 런던에서 일해야 했다(van Gogh, 2000a: 52).¹⁷⁾ 기숙학교 교장인 윌리엄 스톡스(William Stockes)는 형편이 어려운 학부모들이 수업료를 제때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가혹하게 대했다. 수업 환경은 열악하고 음식 또한 양이 적었고 맛도 없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만나러 올 때만 그나마 제대로 된 음식을 내놓을 정도였다. 반 고흐는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유대감을 키워 나갔다. 반 고흐는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van Gogh, 2000a: 60-61). 1874년부터 시작된 삶의 의미를 향한 질문에 대한 답을 반 고흐는 램스게이트 기숙학교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면서 찾게 된 것이다. 지난 2년간 그를 사로잡았던 『그래픽』과 『런던 뉴스』의 삽화들, 디킨스와 엘리엇, 비처 스토프의 글들은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반 고흐는 런던선교회 같은 곳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에 부딪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돌보고 싶었다. 선교사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

17) 학교에는 열 살에서 열네 살까지의 남자아이들 스물 네 명이 공부하고 있었다. 정교사는 없었고 열 일곱 살 된 보조 교사가 한 명 더 있었다. 반 고흐는 이곳에서 프랑스어와 독일어, 수학을 가르쳤다.

보기 위해 런던 시내에 있는 선교 단체를 두세 번 정도 방문하기도 했다(van Gogh, 2000a: 61). 하지만 아직 그에게 선교사로서의 길은 열리지 않았고, 길이 열릴 때까지는 보조교사로 일을 해야 했다(Sund, 2002: 32).¹⁸⁾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성경을 읽어주었다. 아이들은 그가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기도 했다. 반 고흐는 또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맡았다. 하루도 성경을 읽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지냈다(van Gogh, 2000a: 66). 그는 이사야 61장 1절의 “주 여호와와 그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van Gogh, 2000a: 66). 학생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열정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반 고흐의 모습을 본 존스(Rev. Jones) 목사는 반 고흐에게 학교보다는 교회 일에 더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존스 목사의 청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반 고흐는 삶에 큰 전환기를 맞는다. 드디어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에서 나를 만족하게 할 것은 없다(van Gogh, 2000a: 74).” 1876년 11월 10일 테오에게 한 말이다. 반 고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

1878년 8월 반 고흐는 스물다섯의 나이에 벨기에 남부 몽스(Mons)에 위치한 보리나주(Borinage)의 가난한 탄광촌에 수습 전도사로 사역하게 된다(van Gogh, 2000a: 183).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던 반 고흐는 이곳에서 6개월간 수습 기간을 거친 후 선교위원회로부터 목사안수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의 일과는 병자들을 돌보는 일로 시작해서 병자를 돌보는 일로 마무리되었다(van Gogh, 2000a: 187). 반 고흐는 마을회관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광부들의 집을 방문해서 성경공부를 가르치기도 했다(van Gogh, 2000a: 183) 반 고흐는 광부들을 돌보는 일이 너무 좋았다. 1878년 12월 26일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만약 자신에게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van Gogh, 2000a: 183).

당시 반 고흐가 본 광산의 모습은 너무도 비참했다. 광부들은 새벽에 갱도에 들어가 열네 시간씩 일을 해야 했다. 아이들도 탄광에 들어가 일을 했다. 그것은 아이들만이 석탄을 캐기 위해 막장의 좁은 틈새로 몸을 밀어 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들도

18) Van Gogh, Vincent. *The Complete Letters of Vincent Van Gogh*. Vol.1, 69. 당시 반 고흐는 감리교 목사인 존스(Thomas Slade-Jones)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을 했다.

예외는 아니었다. 아내들은 석탄을 등에 지고 옮겨야 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굴뚝들이 서 있고, 산더미 같은 석탄이 광구 주변에 쌓여 있다. 광부들은 모두 여위었고, 열병으로 창백하여 피곤해 보인다. 쇠약하여 비바람에 시달린 모습에다가 곱슬어 보인다. 여인들은 모두 쭈그러들었고 지쳐 있다. 광산 주변은 연기로 그을린 죽은 나무들과 가시 울타리, 똥 더미, 잣더미, 쇠 부스러기에 둘러싸인 가난한 광부들의 오두막집이 즐비하다. (1879.4.16)¹⁹⁾

이것이 그가 바라본 탄광의 처참한 모습이었다. 한번은 이곳에서도 가장 열악한 탄광인 마르까스(Marcasse) 갱도 지하 700m 깊이까지 들어가 여섯 시간을 돌아보았다(van Gogh, 2000a: 187). 이곳은 폭발과 붕괴, 누수, 오염된 공기 등으로 수많은 광부들이 죽어 나간 곳이었다. 탄광은 5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3곳은 더 이상 석탄이 나오지 않아 이미 폐쇄되었고 그 아래로 두 개의 갱도를 더 파 내려가 석탄을 캐고 있었다. 그렇게 채취된 석탄은 어린아이들에 의해 카트(Cart)에 옮겨져 지상으로 올려져 나갔다(van Gogh, 2000a: 186-187). 형편없는 환경에서 작업하는 광부들을 반 반 고흐는 충격을 받았다. 당시 탄광은 낙반 사고와 가스 폭발 등이 자주 발생했다. 반 고흐는 사고로 다친 사람들을 정성껏 돌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 심지어는 옷까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중산층의 삶을 누리며 성장한 아들이 광부들과 다름없이 지내는 모습을 본 도루스가 반 고흐에게 숙식은 편안한 곳에서 해야 한다고 조언할 정도로 반 고흐는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조차 포기한 채 어려운 사람들과 동고동락했다(van Gogh, 2000a: 185).

사람들은 이러한 반 고흐의 모습에 감동받았고 그의 설교에 귀 기울였다. 그러나 수습 기간이 끝날 무렵 그가 속한 선교회는 반 고흐가 목회자가 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van Gogh, 2000a: 172). 성직자는 고귀하고 청결하며 세속인 같은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당시 성직자들의 눈에 비친 고흐의 모습은 정결하지 못했다(Sweetman, 2003: 210-218). 반 고흐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화가가 되는 것이었다(노무라 아쓰시, 2004: 106-110). 그는 설교자와 화가가 하는 일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van Gogh, 2000a:195).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화가는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19) Van Gogh, Vincent. *The Complete Letters of Vincent Van Gogh*. Vol.1, 186.

Ⅲ. 반 고흐의 예술과 소명

1. 그림은 눈에 보이는 설교

화가로서의 반 고흐의 소명은 그가 성직자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된 후에 발견한 두 번째 소명이었다. 반 고흐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그의 갈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에게 그림은 목회자가 되지 못한 후 차선으로 선택한 길이었다. 반 고흐의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소명이 인생 전반부에는 성직자로서 후반부에는 화가로서 표현된 것뿐이었다. 반 고흐에게 그림을 그리는 일은 설교와도 같았다(van Gogh, 2000a: 195). 그는 설교자가 하는 일과 화가가 하는 일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설교자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화가는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Figure 1. Van Gogh, 〈The bearers of the burden〉, 1881, pencil, pen in brown and black ink, white and grey opaque water color on blue laid paper, 47.5 × 63cm, Kröller-Müller Museum, Otterlo

반 고흐의 초기 작품들(1880-1885)을 보면 직조공과 농부와 같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 반 고흐가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을 주로 소재로 삼은 것은 화가로서의 자신의 소명 때문이었다(van Gogh, 2000a: 416). 20대 초반 반 고흐가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목회자가 되기로 한 것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때문이었

다. 그는 삶에 지친 사람들을 복음으로 위로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 그가 1881년에 그린 <부대 자루를 나르는 여인들(The bearers of the burden)>은 화가로서 고흐의 사명이 잘 나타난다. 전경에는 석탄을 지고 가는 여인들이 보인다. 맨 앞에서 석탄을 지고 가는 여인의 손에 램프가 들려있는 것으로 보아 하루의 작업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석탄을 지고 가는 여인들의 모습에서 하루의 고단함이 느껴진다. 후경에는 탄광촌과 교회의 모습이 보인다. 화면 오른쪽에 커다란 고목이 있다. 나무 하단에는 두 자루의 삽이 놓여있고, 나무 중간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형상(形像)이 걸려있다. 반 고흐는 석탄을 이고 가는 여인들 곁에 삽과 예수님을 그려 넣음으로써 노동과 안식 그리고 고통과 위로를 표현하였다.

반 고흐는 인상주의자들이 즐겨 그렸던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 편안함을 느꼈다. “나는 농민들을 그릴 때 마치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 든다(van Gogh, 2000b: 362).” 반 고흐는 자신을 농민 화가라 여겼다. 당시 파리의 주류화단을 지배하던 신고전주의적인 주제들도 반 고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 보리나주 탄광에서 전도사로 사역한 이후 줄곧 반 고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광부와 농부 그리고 직조공들이었다. 반 고흐가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을 주로 소재로 삼은 것은 화가로서의 자신의 소명 때문이었다.

광부들과 직조공들은 아직도 다른 노동자들이나 장인들과는 다른 부류로 취급되고 있다. 참 딱한 이들도다. 언젠가 이 이름 없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그려서 세상에 보여 줄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이다. (1880.9.24)²⁰⁾

반 고흐에게 그림은 제도권에서 소외된 사람에게 내미는 사랑의 표현이었다. 당시 농민과 같은 사람들은 그림의 소재가 되지 못했다. 밀레와 같은 농민 화가들이 농부의 삶을 그리기는 하였지만 반 고흐처럼 농부의 실제 삶을 표현하지는 못했다. 반 고흐가 보기에 그들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농민들의 삶은 파리 근교에 있는 도시인들의 눈에 익숙한 농민이었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농민은 아니었다. 반 고흐는 농민의 삶을 농민의 시선이 아닌 도시 여행자의 시선으로는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농부를 그릴 때는 농부 중 한 사람이 되어 그들처럼 느끼고 생각하면서 그려야 한다(van Gogh, 2000b: 362).”라고 말하였다. 반 고흐는 광부들과 농부 그리고 직

20) Van Gogh, Vincent. *The Complete Letters of Vincent Van Gogh*. Vol.1, 206.

조공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자 했다.

1883년 12월부터 1885년 11월까지 누에넨(Nuenen)에서 지내는 동안 반 고흐는 31점의 소묘(Drawing), 25점의 수채화, 195점의 유화 그리고 19점의 삽화를 그렸다. 2년간 그가 그린 552점의 작품들 가운데 인물을 그린 것들은 대부분 농부와 직조공을 소재로 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이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자 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가 주로 소재로 삼은 농부나 직조공 그리고 광부들을 소재로 한 그림들은 그림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주제들이었다. 만약 그가 사람들에게 팔릴 그림을 그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구매자들에게 매력적인 소재들을 화폭에 담아야 했다. 그가 이렇게 대중의 기호와 동떨어진 그림을 그린 것은 화가가 되고자 한 동기가 다른 화가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반 고흐의 작품들 가운데 팔린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1882년만 보아도 반 고흐는 구필 화랑의 헤이그 지점장인 테르스테인흐(Tersteege)에게 한 점을 팔았고, 미술 서적과 화구(畵具)를 파는 코르 숙부에게는 3점의 작품을 각각 2.50 길더에 팔았다. 코르 숙부는 추가로 12개의 작품을 더 주문하였다(van Gogh, 2000a: 315-324). 구필 화랑에서 화상으로 일했던 반 고흐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림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그림을 그릴 때보다 노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릴 때 더 행복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그림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van Gogh, 2000b: 105). 반 고흐는 광부와 농부 그리고 직조공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그들은 세상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직하며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다(라영환, 2015c: 79-81).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반 고흐도 그림을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었다. 이것이 반 고흐가 농부와 광부 그리고 직조공들을 화폭에 담은 이유였다.

2. 순례자의 영성

1876년 10월 29일 반 고흐는 런던의 턴햄 그린 교회(Turnham Green Church, Isleworth)에서 시편 119편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한다. 그의 설교의 주제는 ‘시간과 영원’이었다. 반 고흐는 시간을 우리가 거하는 곳으로, 영원을 하나님이 거하는 곳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을 향한 순례라고 여겼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시119:19)” 우리에게 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소중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삶은 천국을 향한 순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향하는 긴 여행입니다(van Gogh, 2000a: 87).

런던에서 한 그의 첫 설교는 존 번연(John Bunyan)의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 『천로역정』은 반 고흐가 즐겨 읽었던 책이다. 20대 초반에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던 그에게 『천로역정』은 밤하늘을 비추는 섬광과 같았다.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온 안락함이라는 것이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며, 그 찰나와 같은 시간을 영원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반 고흐는 『천로역정』을 읽고 또 읽었다.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경 다음으로 추천할 책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van Gogh, 2000a: 79). 반 고흐는 이 세상에서 신자들의 삶은 영원을 향한 순례라고 보았다. 이러한 순례자의 영성은 그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였다. 박홍규 역시 삶을 천국으로 가는 여정으로 보는 『천로역정』의 메시지는 반 고흐의 삶을 평생토록 지배하였다고 보았다(박홍규, 2013: 100). 반 고흐는 자신을 언제나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는 나그네처럼 생각했다. “나는 언제나 다른 곳,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는 나그네처럼 느껴 (van Gogh, 2000b: 605).” 반 고흐가 1888년에 그린 <타라스콘으로 가는 화가의 모습>은 반 고흐 자신을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반 고흐는 자신을 화구를 들고 먼 길을 떠나가는 여행자처럼 묘사하였다.²¹⁾

영원을 향한 여정이라는 반 고흐의 모티브는 <영원의 문(At Eternity's Gate)>에도 나타난다. 이 작품은 순례자의 영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이 그림은 1882년에 목탄화로 그린 <슬픔>이라는 작품을 다시 유화로 그린 것이다. 화면 중앙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절망하는 한 노인의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이 절망에

21) <https://www.vincentvangogh.org/the-artist-on-the-road-to-tarascon.jsp> (검색, 2019.7.11.). 안타깝게도 이 그림은 2차대전 중 소실되었다. 프랑스의 조각가 브루노 카탈라노(Bruno Catalano)는 반 고흐의 <타라스콘으로 가는 화가의 모습>에 영감을 받아 반 고흐를 여행자로 묘사하였다. 참고. <https://alchetron.com/Bruno-Catalano> (검색, 2019.7.11.).

빠진 노인의 모습에서 『천로역정』의 한 장면이 연상 된다.

그 사나이는 깊은 슬픔에 젖은 표정을 하고 팔짱을 낀 채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하고 크리스천이 물었을 때 해석자는 ‘직접 물어보라’라고 말해주었다. 그전에는 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훌륭한 신자였고 박식한 사람이었지요. 그 당시만 해도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고(누가복음 8장 13절) 자신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기뻐하곤 했지요. ... 이제는 절망의 인간이 되어 버린 채 이 쇠창살 감방 안에 갇혀 난 아무 데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 항상 깨어 근신하지 못하여(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세상의 정욕이 계목을 엮매였고 마침내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 아! 영원한 고통!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이 무시무시한 고통을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John Bunyan, 2008: 67-70)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였을까? 단지 영원의 문 앞에서 절망하는 한 사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면 마치 해석자가 크리스천에게 절망하는 이 사람을 보여줌으로써 세속적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영원을 사모하라고 한 것처럼 순례자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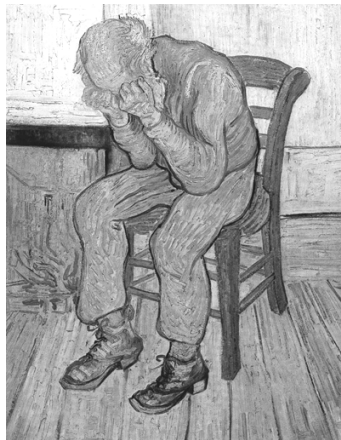


Figure 2. Van Gogh, <At Eternity's Gate>, 1890, oil on canvas, 80 × 64cm, Kröller-Müller Museum, Otterlo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한 사람에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전3:15).”라고 말한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반 고흐를 평생 지배했던 중심 주제였다. 반 고흐가 1889년 6월에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도 영원에 대한 반 고흐의 갈망이 나타난다. 이 그림의 주제는 별이다. 반 고흐는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반 고흐는 별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밤하늘에 있는 별은 나를 꿈꾸게 하지. 왜 우리는 프랑스 지도 위에 있는 점들과 같이 저 별에 갈 수 없을까? 타라스콘(Tarascon)이나 루앙(Rouen)에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야 하는 것처럼, 저 별에 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겠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야. (1988. 7. 10)

반 고흐를 꿈꾸게 한 별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갈 수 없는 곳에 있었다. 반 고흐에게 별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영원의 세계였고, 그 ‘영원’이 반 고흐를 꿈꾸게 한 것이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해바라기>에도 나타난다. 해바라기는 꽃말 그대로 해를 바라보는 꽃이다. 반 고흐는 해바라기가 갖는 이러한 상징성과 해바라기의 색채 그리고 태양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의 특성을 영원을 추구하는 신자들의 갈망을 표현했다(라영환, 2015b: 77-78). “그리스도인은 부단히 거듭나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van Gogh, 2000a: 90).” 반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1888년 6월 18일 베르나르(Emil Bernard)에게 보낸 편지에서 반 고흐는 씨를 뿌리고 밀을 수확하는 작업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설명한다(van Gogh, 2000c: 488).

잠시 떠도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매일의 의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더 높은 것을 가르쳐주십니다(van Gogh, 2000a: 91)

여기서 반 고흐가 말하는 매일의 의무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의미한다. 반 고흐에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그림이었다.

IV. 맺는말

본 논문의 목적은 신화에 가려진 참된 반 고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진 화가가 되기 이전의 반 고희의 삶의 여정과 그의 작품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룸으로써 반 고희의 예술은 그의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반 고희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화가가 되기 이전의 27년간의 삶을 살펴보아야 한다. 반 고희가 삼 대째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그가 구필 화랑 런던지점에서 보내면서 당시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 운동에 영향을 받아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목회자가 되기로 한 것 그리고 벨기에 남부 보리나주 탄광에서 수습 설교자로 지내면서 목회자로서의 꿈을 키웠다는 사실은 반 고희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해석학적인 열쇠를 제공한다. 화가가 되기까지의 반 고희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화가는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가 선택한 두 번째 소명이었다. 그는 설교자가 하는 일과 화가가 하는 일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그에게 그림은 설교였다. 반 고희가 광부와 직조공 그리고 농부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주로 화폭에 담은 것도 그의 소명 때문이었다.

1876년 10월 29일 반 고희는 런던의 턴햄 그린 교회에서 시편 119편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한다. 그의 설교의 주제는 ‘시간과 영원’이었다. 이 설교는 반 고희의 예술세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반 고희는 시간을 우리가 거하는 곳으로, 영원을 하나님이 거하는 곳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을 향한 순례라고 여겼다. 영원을 향한 순례라는 모티브는 반 고희를 평생 사로잡은 주제였다. 반 고희가 1882년에 그린 <슬픔>이라는 작품과 1890년에 그린 <영원의 문>이라는 작품은 순례자의 영성을 모티브로 그린 것이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반 고희의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소명이 인생 전반부에는 목회자로서 후반부에는 화가로서 표현된 것뿐이었다. 그림은 그에게 눈에 보이는 설교였다.

이번 연구를 기초로 반 고희의 작품과 기독교 세계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다 진행된다면 소명을 따라 살았던 화가 반 고희가 더 많이 조명되었으면 한다. 미술사적으로도 반 고희는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의 전통에서 있다고 여겨진다. 이 부분에 관

한 연구가 더 진행된다면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 미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확실히 반 고흐의 작품은 19세기 프랑스를 휩쓸었던 신고전주의, 바로비중 그리고 인상주의와 구별된 반 고흐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향후 이 부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반 고흐가 서양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의의가 더 잘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 미술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라영환 (2015a). **반 고흐, 삶을 그리다**. 서울: 가이드포스트.
- [Ra. Y. H. (2015a). *Van Gogh, Drawing the Life*. Seoul: Guidepost]
- 라영환 (2015b). <성경이 있는 정물화>를 통해서 바라본 고흐의 소명. **신앙과 학문**, 20(2), 69-90.
- [Ra. Y. H. (2015b). Van Gogh's Calling in light of <Still-life with Open Bible>. *Faith & Scholarship*, 20(2), 69-90]
- 라영환 (2015c). 빈센트 반 고흐의 삶과 예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정신. **신앙과 학문**. 20(4), 69-85.
- [Ra. Y. H. (2015c). The life and Art of Van Gogh: The Spirit of Prostantism in the Works of van Gogh. *Faith & Scholarship*, 20(4), 69-85]
- 라영환 (2017). 폴 고갱과 반 고흐의 기독교 이미지 사용에 관한 연구. 서성록 (편저). **이미지와 비전** (pp. 89-131). 서울: 예서원.
- [Ra. Y. H. (2017). A Study on the Use of Christian Images by Paul Gauguin and Van Gogh. Seo. S. R (Eds.). *Image and Vision* (pp. 89-131). Seoul: Yeseowon.]
- 박홍규 (2013). **독학자, 반 고흐가 사랑한 책**. 서울: 해너머.
- [Park. H. K. (2013). *A Book loved by van Gogh*. Seoul: Henemer.]
- 서성록 (2013).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 연구. **예술과 미디어**, 12(3), 7-13.
- [Seo. S. R. (2013). A Study of Van Gogh's Potato Eaters. *Art and Media*, 12(3), 7-13.]
- 심양섭 (2011). 빈센트 반 고흐 미술의 기독교적 의미. **신앙과 학문**, 16(3), 147-172.
- [Shim. Y. S. (2011). The Christian Meaning of the Art of van Gogh. *Faith & Scholarship*, 16(3), 147-172]
- 안재경 (2014). **고흐의 하나님**. 서울: 흥성사.
- [Ahn. J. K. (2011). *van Gogh's God*. Seoul: Hongsungsa.]

<번역서>

- 김소운 역 (2004). **반 고흐, 37년의 고독**. 노무라 아쓰시 (1998). *ゴッホ紀行*. 서울: 큰결.
- [Kim. S. W. (2004). *Van Gogh, 37 Years of Solitude*. Seoul: KunGyul. Trans. 野村篤 (1998). *ゴッホ紀行*. Tokyo: Kyuryudo Art Publishing.]
- 이동진 (역) (2008). **천로역정**. John Bunyan, *The Pilgrim's Progress* (1999). 서울: 해누리.

- [Lee. D. J. (2008). *The Pilgrim's Progress*. Seoul: Henuri. Trans. John Bunyan(1999), *The Pilgrim's Progress*. Iwoa: International Outreach.]
- 이세진 역 (2006). **반 고흐 효과: 무명화가에서 문화적 아이콘으로**. Heinich. Nathalie (1998). *La gloire de Van Gogh: essai d'anthropologie de l'admiration*. 서울: 아트북스.
- [Lee. S. J. (2006). *van Gogh Effect: From unknown Artist to Cultural Icon*. Seoul: Art Books. Trans. Heinich. Nathalie (1998). *La gloire de Van Gogh: essai d'anthropologie de l'admiration*. Paris: Les Derniers Publications.]
- 이종욱 역 (2003).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한 화가**. Sweetman, David (1990). *Van Gogh: His Life and His Art*. 서울: 한길 아트.
- [Lee. J. O. (2003). *Van Gogh: His Life and His Art*. Seoul: Hangil Art. Trans. Sweetman, David (1990). *Van Gogh: His Life and His Art*. New York: Crown.]
- 최문희 역 (2007). **하나님의 구두**. Edwards, Cliff (2002). *A Spiritual and Artistic Journey to the Ordinary: The Shoes of van Gogh*. 서울: 솔.
- [Choi. M. H. (2007). *The Shoes of God*. Seoul: Sol. Trans. Edwards, Cliff (2002). *A Spiritual and Artistic Journey to the Ordinary: The Shoes of van Gogh*. New York: Crossroad.]

<해외도서>

- Gogh, Vincent (2000a). *The Complete Letters of Vincent van Gogh* vol. 1. London: Thames & Hudson.
- Gogh, Vincent (2000b). *The Complete Letters of Vincent van Gogh* vol. 2. London: Thames & Hudson.
- Gogh, Vincent (2000c). *The Complete Letters of Vincent van Gogh* vol. 3. London: Thames & Hudson.
- Gogh, Vincent (2007). *Drawings and prints by Vincent van Gogh in the Collection of the Kröller-Müller Museum*. Otterlo, the Kröller-Müller Museum.
- Krauss, André (1983). *Vincent Van Gogh: Studies in the Social Aspects of his Work*. Tel Aviv, Zmora Bitan.
- Meedendorp, Teio (2016). *The Vincent Van Gogh Atlas*. Amsterdam: van Gogh Museum.
- Neifeh, Steven. & Smith, Gregory W (2011). *Van Gogh: The Life*. New York: Randon House.

- Pickvance, Ronald (1974). *English Influences on Vincent van Gogh*. London: Balding & Mansel Ltd.
- Riner, Maria Rilke (1985). *Letters on Cézene*. New York: Fromm International Publishing.
- Sapir, Meyer (1980). *Van Gogh*. New York: Doubleday.
- Sund, Judy (2002). *Van Gogh*. New York: Phaidon.
- Wessels, Anton (2013), *Van Gogh and Art of Living*. London: Wipf & Stock.

<인터넷자료>

https://en.wikipedia.org/wiki/Historical_urban_community_sizes (검색일 2019.7.22.)

<https://www.vincentvangogh.org/the-artist-on-the-road-to-tarascon.jsp> (검색일 2019.7.11.)

논문초록

반 고희의 예술과 소명에 관한 연구

라영환 (충신대학교)

반 고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광기 어린 천재와 비극적인 죽음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로 인해 반 고희에 관한 글을 보면 대부분 광기 어린 천재로서의 반 고희의 신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러한 신화는 화가 반 고희의 그림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반 고희가 한때 목회자가 되기를 갈망했으며, 화가는 그가 목회자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된 후에 실패에서 발견한 소명이었다는 사실은 덜 알려져 있다. 반 고희에 관한 글들을 보면 주로 그가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27세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10년의 세월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반 고희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화가가 되기 이전의 27년간의 삶을 살펴봐야 한다. 반 고희가 삼 대째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그가 구필 화랑 런던지점에서 보내면서 당시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 운동에 영향을 받아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목회자가 되기로 한 것 그리고 벨기에 남부 보리나주 탄광에서 수습 설교자로 지내면서 목회자로서의 꿈을 키웠다는 사실은 반 고희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해석학적인 열쇠를 제공한다.

1876년 10월 29일 반 고희는 런던의 턴햄 그린 교회에서 시편 119편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한다. 그의 설교의 주제는 ‘시간과 영원’이었다. 반 고희의 첫 번째 설교는 그의 예술세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반 고희는 시간을 우리가 거하는 곳으로, 영원을 하나님이 거하는 곳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을 향한 순례라고 여겼다. 영원을 향한 순례라는 모티브는 반 고희를 평생 사로잡은 주제였다. 반 고희의 작품들, 특별히 초기 작품들을 보면 초기 반 고희를 사로잡은 주제들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그것은 노동하는 사람들이었다. 반 고희가 노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화폭에 담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의 모습을 화폭에 담은 것은 그의 소명 때문이었다. 반 고희의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소명이 인생 전반부에는 목회자로서 후반부에는 화가로서 표현된 것뿐이었다. 그림은 그에게 눈에 보이는 설교였다.

주제어 : 반 고희, 소명, 순례자, 영원, 농민화